

가나 경제 및 에너지 동향 (2023.6.17.-30.)

1. 경제

가. 2023년 1분기 경제성장률 4.2% 기록

- 가나통계청(GSS)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2022년 1분기 3.0%에서 1.2%p 상승한 4.2%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 부문별 성장률은 서비스업이 10.1%로 가장 높았고, 농업 및 산업이 각각 4.8% 및 3.2%를 기록하였으며, 산업별 GDP 비중은 서비스업이 47%, 산업 및 농업이 각각 32% 및 21%를 차지함.
- 특히,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37.6%), 보건(31.6%), 교육(26.0%), 정보통신(18.9%) 등 하위 부문(sub-sector)의 성장이 경제성장을 견인한 주요 요인으로 평가됨.

나. 켄 오폐리아타 가나 재무장관, IMF 구제금융 관련 개혁 추진 계획 발표

- 켄 오폐리아타(Ken Ofori-Atta) 가나 재무장관은 6.18.(일) 언론 브리핑에서 IMF의 확대신용대출(ECF) 지원 하에 진행되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성장 프로그램(PC-PEG)」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화를 달성하고, 세입 증가 및 지출 효율화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재정 건전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함.
- ※ 기대인플레이션 안정 및 재정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2028년까지 ▲GDP 대비 공공 부채 비율 55% 이하 유지, ▲세수 대비 대외채무 비율 18% 이하 유지, ▲GDP 대비 수출 비중 37% 초과 달성 등을 중기 목표로 설정함.
- 또한, 동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부채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에너지 및 코코아 부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코아위원회(COCOBOD) 및 가나전력공사(ECG) 등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부문 기관에 대한 개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 ※ 에너지 부문 개혁 주요 내용
 - (목표) 에너지 부문 채무 축소(2023.5월 기준 에너지 부문 채무가 20억 불이며, 2023-2025년 간 59억 불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추진 계획) 에너지 부문 회복 프로그램(ESRP) 수정을 통한 에너지 부문 손실 축소(동 프로그램 수정을 위한 개정안 6월 말 국회 승인 계획)

다. 아프리카수출입은행 제30차 연차총회 가나 개최(6.18.-21.)

- 아프리카수출입은행(Afreximbank)은 6.18.(일)-21.(수) 간 가나 수도 아크라에서 ‘비전 실현, 아프리카인을 위한 번영 촉진(Delivering the Vision, Building Prosperity for Africans)’을 주제로 제30차 연차총회를 개최함.
-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6.19.(월) AU 금융기구 대표(Champion of Financial Institutions)로서 개최사를 실시, 아프리카 대륙 내 강력한 자체 금융기관이 없는 한, 위험하고 비싼 외국 자본에 계속 의지하게 되어 아프리카 대륙의 발전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프리카개발금융기관의 자본력을 확대하고 은행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또한, 국제신용평가사가 가나 등 일부 AU 회원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시켜 회원국의 자본시장 접근이 제한되었다고 비판하고, 가나의 거시경제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충격으로 악화되자 아프리카수출입은행이 적시에 경제회복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였다고 평가함.

※ 아프리카수출입은행, 중국수출입은행 및 일본수출입은행 간 자본금 비교

금융기관	자본금(달러)
아프리카수출입은행(Afreximbank)	60억
중국수출입은행(China EXIM)	540억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190억

- 한편, 가나 정부는 동 연차총회 개최 계기에 아프리카수출입은행과 주요 개발사업을 위한 차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보안크라 내륙항 건설사업) 아산티항만서비스社*(Ashanti Ports Services Limited)는 아프리카수출입은행과 2억8천만 불 규모의 보안크라(Boankra) 내륙항 건설을 위한 차관계약을 체결함.
- * 동 기업은 가나 기업인 Afum Quality社와 우리 기업인 DSS Associates의 합작 투자를 통해 가나에 설립한 일종의 특수목적법인임.
- ※ 동 내륙항 건설사업은 총 3억3천만 불 규모로, 설계·시공·조달·건설·운영·시설 유지 관리 등을 포함하며, 아산티항만서비스社가 3년 내 내륙항 건설을 완료하고 27년간 사업권을 보유한 이후 가나 정부에 운영권을 넘길 예정임.

- (철도 개발사업) 가나철도개발청(GRDA)은 아프리카수출입은행과 철도 인프라 재건 및 네트워크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1백만 불 규모의 차관계약을 체결한바, 동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35억 불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여 가나의 서부 철도 회랑 사업(Western Railway Corridor Project)을 재개할 계획임.
- (석유·가스 업스트림 부문 개발사업) 가나 석유·가스 기업인 Springfield Exploration Production Limited(SEP)는 아프리카수출입은행과 7억5천만 불 규모의 차관계약을 체결하여 West Cape Three Points Block Two 유전광구(oil block)에 위치한 Afina-Sankofa 유전(field)* 개발과 석유·가스 업스트림 부문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함.
- * 2019년에 발견된 Afina-1 유정(well)에는 15억 배럴 규모의 석유 및 1조 입방 피트(TCF) 규모의 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됨.

라. 가나 제1회 자동차산업 회의 개최(6.27.)

- 제프리 페프라(Jeffery Oppong Peprah) 가나자동차조립생산자협회(AAAG) 회장은 동 협회 주최로 개최된 ‘제1회 가나 자동차산업 회의(Ghana Automotive Summit)’에서 가나 내 조립생산 차량이 2027년까지 12,000대에 달해 국내 신차 시장의 6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2021년 기준 46억 불 규모였던 자동차산업이 2027년 106억4천만 불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힘.

※ 2020-2022년간 가나의 총 국내 자동차 조립 생산량은 4,700대 증가, 국내 신차 시장의 9.7% 차지

- 아울러, 가나의 자동차산업을 통한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가나 정부가 ‘가나 자동차산업 육성정책*(GADP)’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자동차 조립생산 중심지에서 부품 제조 중심지로의 전환 및 10년 이상 중고차 판매 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가나 정부는 가나를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자동차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 ‘가나 자동차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폭스바겐, 도요타, 스즈키, 닛산, 푸조, 현대, 기아, 창안(Changan), 칸탄카(Kantanta) 등 8개 브랜드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6개의 자동차 조립공장 유치

2. 에너지 · 자원

가. Tullow Ghana社, 하루 석유 40,000 배럴 추가 생산

- 위삼 알몬트리(Wissam Al-Monthiry) Tullow Ghana社 전무이사는 Greater Jubilee 유전에서 하루 약 40,000배럴의 석유가 추가로 생산되어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Jubilee 유전에서 지난 3년간 주춤했던 생산량이 회복(일일 생산량 85,000 배럴→100,000배럴)되어 향후 120,000배럴까지 생산량을 증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러한 석유 생산량 증가는 Tullow Ghana社の ‘가나 생산량 극대화 계획(Ghana Volume Maximization Plan)’에 따라 개발 중인 서부(Western)州 Cape Three Points 해양 유전광구(offshore oil block)에 위치한 Jubilee South East(JSE)의 개발 성과로 달성되었다고 설명함.

나. 가나 독립발전사업자(IPPs), 7월부터 전력 생산 중단 경고

- 가나 독립발전사업자들은 가나 정부가 총 19억 불에 이르는 전력 구매 대금을 지불지 하지 않은바, 6.30.(금)까지 미지급금의 30%인 5억7천만 불을 지급하지 않으면 7.1.(일)부터 전력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함.
 - ※ 독립발전사업자(IPPs)는 가나 전체 에너지믹스에서 46%의 비중을 차지하며, 이 중 화력 발전 부문에서는 67%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정부의 대금 미지급으로 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으며, 발전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함.

3. 개발협력

가. 농업 부문 생산성 향상을 위한 1,500만 불 규모 농업 이니셔티브 확대

- 나나 아서(Nana Ato Arthur) 가나 지방정부청장은 6.21.(수) 농업 부문 생산성 향상과 식량안보 개선을 위해 1,500만 불 규모의 농업 이니셔티브인 ‘District Agricultural Governance Index’를 216개의 지방자치단체(MMDAs)로 확대한다고 발표함.

* 동 농업 이니셔티브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지원 하에 CARE International 가나지부의 ‘미래 농업 부문 거버넌스 경제 역량 강화 사업(Feed the Future Agricultural Governance Resilience in Economic Empowerment(AGREE))’의 일환으로 진행됨.

- 북동부.북서부.북부.사바나.동북부주의 28개 군(district)에서 동 이니셔티브를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진행된바, 동 성과를 바탕으로 216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계획임.

- 한편, 동 이니셔티브 하에서 각 지자체는 전체 예산의 5%를 농업 부문에 지출해야 하며, 연간 지출의 40%를 생산 후 활동(post-production activity)에 할당해야 함.

나.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700만 불 규모 농민 지원활동 사업 개시

○ 가나 정부는 6.26.(월) 미국 국제개발처(USAID) 및 세계식량계획(WFP)과 협력하여 7백만 불 규모의 ‘농민 지원활동 사업(Farmer support activity)’을 시작한바, 3개월 동안 북동부(Upper East)주·북서부(Upper West)주·동북부(North East)주·북부(Northern)주 내 17개 지역의 농민 17,000명을 대상으로 농업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임. 끝.